

※ 2023년 환경주일 선언문 낭독 | 류순권 목사, 강민주 집사(기환연 집행위원)

※ 결단찬송 | “부르신 뜻을 사는 우리” | 다함께

류형선 작사, 작곡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뜻한 오감을 나누며
 그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 뒤를 - 따르게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든 이 땅을 고쳐주소서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그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 주소서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
 주의 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

※ 파송의 말씀 | 다함께

인도자 :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녹색은총을 힘입어 기후위기 시대, 생태정의를 일구는 이 귀한 사역에 앞장서십시오.

다함께 : 우리는 창조세계의 일부이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창조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고 섬기며 생태정의를 일구어 가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아멘

※ 축 도 | 장석근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환경선교위원장)

알리는 말씀

1.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예배 후 녹색교회 시상식과 생태정의를 기원하는 걷기기도회가 이어집니다. 성당 뒤편 마당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성당-정동제일교회-성당)

2023년 제40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생태정의를 일구는 교회

- 지금 당장 생명의 희망을!

2023년 5월 23일(화) 오후 2시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 제40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

□ 인도 : 이택규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생태공동체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여는찬송 |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인도자 : 주님,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의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다함께 :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십니다.”(시편 104:24,30-31)

※ 생명살림의 찬송 | “찬송가 478장” | 다함께

- 1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 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 2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 3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 하도다 아멘

생명살림의 기도 | 황수석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기후위기대응위원장)

응답송 |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 다함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특별공연 | 에덴에서 바벨까지 | 조성진 집사 (NCCK 생명문화위원회 위원)

“에덴은 출애굽을 한 하비루가 배고픔 속에서 꾸 꿈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온전한 삶, 하지만 우리는 욕망의 눈이 밝아졌다. 홍수를 경험하고도 바벨의 벽에 갇힌 채 바벨의 삶을 즐기면서 겉으로는 구원을 기도한다.”

성경봉독 | 로마서 8:19-21, 마가복음 12:1-12 | 파니 위원(기환연 집행위원회)

김신형 목사(NOCK 생명문화위원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된 것은 제 본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곧 피조물에게도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날이 올 것입니다.”(롬 8:19-21)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울타리를 둘러치고는 포도즙을 짜는 획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그것을 도지로 주고 멀리 떠나갔다. 포도 철이 되자 그는 포도원의 도조를 받아오라고 종 하나를 소작인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 종을 붙잡아 때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른 종을 또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도 머리를 쳐서 상처를 입히며 모욕을 주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그 종을 죽여 버렸다. 그래서 더 많은 종을 보냈으나 그들은 이번에도 종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주인이 보낼 사람이 아직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내 아들이야 알아주겠지.” 하며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저게 상속자다. 자, 죽여 버리자. 그러면 이 포도원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하며 서로 짜고는 그를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어던졌다.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돌아와서 그 소작인들을 죽여 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다. 너희는 성서에서,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에게는 놀랍게만 보인다.’ 한 말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고 예수를 잡으려 하였으나 군중이 무서워서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막 12:1-12)

설 교 |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 이경호 의장주교 (대한성공회)